

農漁村近代化의 旗手로 성장

제4회 全國 새마을 技術指導 事例發表會 成果

科學技術 普及으로 科學營農 촉진

科學技術인들이 새마을運動 現場의 科學的인 診斷과 計劃, 그리고 隘路技術을 指導解決하여 農漁村의 近代化를 促進시키기 爲한 새마을技術 奉仕 활동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알찬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새마을技術奉仕團 中央會는 지난 9日 大邱商工會議所에서 第4回 全國새마을 技術指導事例發表會를 갖고 지난 1年동안의 活動에서 얻어진 成果를 9個道團別로 發表하여 比較 評價하고 우수사례를 표창,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技術지도를 수행했던 科學技術者와 새마을關係 공무원 및 새마을지도자등 7百餘名이 參加한 이번 행사는 우선 그 규모에 있어서 例年에 볼 수 없었던 大盛況이었으나 그 내용 또한 質的으로 크게 향상된 우수한 것이었다는 審査委員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그중에서도 慶北道새마을 技術奉仕團의 崔炬 교수(경북대)가 發表한 「모래땅을 옥토로」의 事例는 우리나라에 무진장으로 묻혀 있는 沸石을 利用하여 모래땅을 沃土로 改良하고 單位面積當 수확량을 올린 내용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아 最優秀賞의 榮光을 얻었다.

또 全南의 梁福承교사(高興東中敎監)가 低濕 畝에 딸기 재배기술을 보급한 사례와 忠北의 南基煥교사(鎭川農高)가 나뭇재로 사과나무 부란 병 방제기술을 개발 보급한 事例들은 모두 높은 評價를 받아 각각 優秀賞을 받았다.

이외의 6個 事例는 모두 獎勵賞에 머물고 말

았으나 그 나름의 特殊性과 發展的인 素地가 많은 內容들로서 밝은 展望을 내다 볼수 있었다.

더우기 이번 事例發表에서 共通性을 지니고 있는 點은 첫째 科學營農의 效果를 體驗한 농어촌에서는 住民들의 團結된 노력이 더욱 活性化되고 들쭉는 所得이 急 捷포로 成長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었다.

그리고 相對的으로 現地 주민들을 과학영농의 길로 이끌어 준 과학기술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적 활동이 結晶되었음을 엿볼수 있었다.

따로 專門職을 가지고있는 科學技術者들이기 때문에 時間에 쫓기면서 經濟的으로 또는 어려운 環境與件속에서도 이를 克服하고 努力한 흔적을 뚜렷하게 볼수 있었던 것이다.

농어촌근대화의 지름길은 營農의 科學化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와 영농 방법을 과학적인 사고와 기술적인 방법으로 개선함으로써 근대화를 이룰수 있다.

그러나 수용태세의 미비와 보급활동의 부진으로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유일한 특수 민간운동의 하나인 새마을技術奉仕 活動은 매우 뜻깊은 일로서 이제 農漁村의 近代化를 促進하는 旗手로 成長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經驗을 살려 보다 能率的이고 알찬 收穫을 거둘수 있는 活動으로 擴大되어야 하겠으며 全國民科學化운동의 核心體로 發展시켜 所期의 目的 達成에 더욱 拍車를 가해야 하겠다.